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공화국의 령도와 령공, 령해를 인민군대가 지킨다. 그 뿐이 아니라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현상에서도 인민군인들이 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인민을 돕자!》는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인민군대는 한손에는 총을 쥐고 다른 손에는 마치를 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인민군대는 창건후부터 오늘까지 70여성상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지키었고 령성변영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인민군대가 국가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혁혁한 공훈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대를 이어 탁월한 령장들을 모신 데 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건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장성강화되었으며 정예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솔하에 백전백승강군의 명성과 위력을 높이 떨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장구한 세월 자위의 총대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한 무적의 강군이다. 인민군대는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반공화국적대세력과 의용군을 대결전에서 령전승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적술, 비범한 령공술의 자랑찬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 위업, 군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조선인민군 군위 서술류 경수제 105명사단에 선군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군대의 5 200여개의 단위를 지휘하시며 군력강화를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최전선부대들의 전방초소로부터 각급 군사학교들, 비행부대, 탱크부대, 해군부대 등 군종, 병종부대들, 구 부대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들을 걸음마다 단호히 분쇄하고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을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가장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것은 군력강화로 조국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낳은 력사의 기적이다.

대소한의 강추위, 삼복의 무더위와 폭우도 가림없이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그이의 애국헌신을 오성산의 칼바람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 칠령과 1211고지를 비롯한 천리방성초소들과 굽이굽이의 전진길들이 오늘날도 길이 전하고 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인 2011년 12월에도 인민군대의 화려타격훈련을 몸소 지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남기신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불패의 강군으로 건설하신 인민군대는 정예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무적결승의 위업을 더 높이 떨치고 있다.

정예하는 원수님께서도 인민군대를 부강조국건설

정환 평화는 그 누구도 범법하지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하시며 군력강화에 모 든 힘을 기울이시었다.

중증첩첩 막아서는 시련의 고비들을 강행돌파하여 오신 그이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세에 의하여 이처럼 짧은 기간에 군력강화에서는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일어나 인민군대는 세계적강군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자기의 실제적인 힘으로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것처럼 인민의 행복을 쫓아오고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가는 창조의 기수로서의 영예를 떨치고 있다.

세상에 군대라는 무장집단이 출현한 이래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군대는 있지만 조선인민군과 같이 나라의 짐을 덜고 인민에게 덕을 주는 군대는 없다.

인민군대를 부강조국건설

의 주력군으로 믿고 내세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 밑에 인민군대는 창조의 마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불타던 전초기에 뿌리내린 거목들과 재더미위에 솟아난 비날뿔생산기지를 비롯한 창조물들, 서해갑문과 안방청년발전소와 같은 건설물들, 사회주의대지대기 변모된 협동농장들, 메기공장과 양어기지를, 닭공장들과 양어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수많은 재부들에 인민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의 땀이 스며여 있다.

《미래를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고 마음껏 설계하라!》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인민이 바라는 곳에서 언제나 창조와 건설의 돌과구름 맨 앞장에 일어나간 인민군인들의 무비의 창조정신과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번영의 열매,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되었다.

인민군장병들이 건설한 창조물들을 보시고 우리 군대는 재미가 있고 매력에 있다 고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지하여 하나하나의 모든 창조물들을 건설하여도 먼 후날에 가도 손색이 없는 나라의 재부, 인민의 향유물로 일떠세우는 인민군대에 대한 최상의 평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창조의 강군인 인민군대의 면모는 오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노선을 실현하는 길에

서 더욱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군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문명국의 체모에 맞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재부들을 무수히 창조하고 있다.

우후속승처럼 일떠선 마식령스키장, 룡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려명거리, 과학기술관, 증평남새농산물시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고 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창조물들에 전진속도, 마식령속도, 려명신화의 창조자들이 인민건설자들의 땀맺은 모습인 비껴 있다.

군인건설자라는 말은 공화국에서란 있을 수 있는 부

름이다. 이 말에 조선인민군의 남다른 특징이 있기도 하다. 군대를 소비집단으로, 백성이 먹여살리는 것을 응당한것으로 보만 여기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

최고사령관의 구상과 명령이란 오직 한복소리, 《알았습니다!》의 대답밖에 모 르며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불굴의 공격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으로 결사관철하는 인민군대의 발전속도이다. 나라의 발전속도로 되고 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이런 군대가 있어 공화국은 강하고 끊임없이 비약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빛나는 행로에 위대한 령장을 모시어 강군이 있고 강국이 있다는 진리를 즐기게 써가 있다.

본사기자 리 설

자위의 군력을 건설하시는 나날에

자위의 병기를 자체의 힘으로

주제 37(1948)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병기공장에서 만든 기관단총의 성능을 알아보시려고 사격장을 찾으신다.

그이께서는 무기고에 있는 기관단총을 보시며 일부 사람들이 총신경이나 불뿔용수철 같은 것은 외국에서 사오자고 하였지만 그것들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무슨 일이든지 제힘으로 하겠다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이후 그이께서는 사격터에 이르시어 50m거리에 설치한 원형목표에 단발로 연속 세발을 사격하시었다.

10점원안에 명중된 목표지를 보신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이 아주 훌륭하다고, 명중률도 높고 집중성도 좋다고 커다란 만수를 표시하시었다.

군복에서는 언제나 땀내가 나야 한다

훈련을 지켜보신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이 군복에서는 언제나 땀내가 나야 한다고, 군인들이 싸움마당에서 기묘한 전술을 써서 적을 무찌르고 재능도 땀을 흘리는 과정에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하시었다.

군인의 군복에서는 언제나 땀내가 나야 한다고, 군인들이 싸움마당에서 기묘한 전술을 써서 적을 무찌르고 재능도 땀을 흘리는 과정에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후 그이께서는 사격터에 이르시어 50m거리에 설치한 원형목표에 단발로 연속 세발을 사격하시었다.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보아주시며

주제 103(2014)년 3월 어느날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가 있었다.

그해 신년사에서 인민군대에서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명사수, 명포수 운동을 힘있게 벌여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정예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그날 현지에서

사격경기를 보시었다.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룬 사격경기를 보신 정예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명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주야, 계절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들

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키우자면 지휘성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며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매혹과 흠모 음악의 천재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걸쳐있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 날이 갈수록 매혹되고 있다.

완하신 그 영상 한면 비워도 마음은 정에 울리고 영명한 그 말소 한면 들어도 온몸이 그 뜻에 끌리어 너도나도 달려가 심장을 주며 끝없는 흥미의 마음 새하게 끓어 오른다.

학기에 공화국에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군사, 문학예술, 체육,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변혁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비범 특출한 절세위인의 세계를 다 안다는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령도의 자욱자욱에 새겨진 단편으로 본 위인상을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쾌일에 대한 희망과 광망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쉽게 뛰어들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문학예술, 체육,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변혁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비범 특출한 절세위인의 세계를 다 안다는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령도의 자욱자욱에 새겨진 단편으로 본 위인상을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쾌일에 대한 희망과 광망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쉽게 뛰어들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학기에 공화국에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군사, 문학예술, 체육,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변혁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걸쳐있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 날이 갈수록 매혹되고 있다.

완하신 그 영상 한면 비워도 마음은 정에 울리고 영명한 그 말소 한면 들어도 온몸이 그 뜻에 끌리어 너도나도 달려가 심장을 주며 끝없는 흥미의 마음 새하게 끓어 오른다.

학기에 공화국에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군사, 문학예술, 체육,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변혁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걸쳐있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 날이 갈수록 매혹되고 있다.

자기식의 독특한 발전이 비견 창조물들

진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통해서도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진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진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통해서도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진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학기에 진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할 수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변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 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 경월